

# 李대통령 “지방정부, 복합 경제위기 극복 주체로 나서야”

## 26조 규모 ‘빚 없는 추경’ 시정연설

### 중동전쟁 장기화 지방 권한·재정 강화 지역화폐로 지원금... 청년창업도시 구축 내수 진작 ‘지역경제·민생살리기’ 방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복합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총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외적 경제 충격이 지방과 골목상권, 취약계층에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닥친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강화하는 ‘지역 주도의 위기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 추경은 국제 발흥 없이 증시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 25조 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으로 짜였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과감한 지방 재정 확충과 내수 진작책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9조 5천억원의 투자 재원을 지역에 보강

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대응을 넘어 지방정부가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서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국민(약 3천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이 지원금이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가계의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강제해 위축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원자재가 상승의 삼중고를 겪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핀셋 대책도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유가 연동 보조금과 비료·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늘려 지역 1차 산업의 붕괴를 막는다. 또한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내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늘려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과 소득 증대를 꾀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책’도 대거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가 사회에 첫발을 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스타트업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거점별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구축하고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청

년’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재도전을 돕는다.

아울러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은 물론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지역 축제와 관광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차원의 거시적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했다고 밝히며, 20년 만에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과 환율 변동 등에 대비해 5조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사태의 엄중함을 짚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이번 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대한민국의 도약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는 만큼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김진수 기자

## “5월정신 수록 등 이론 없어...가능한 범위 부분개헌”

### 李대통령,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환담 禹의장 “3일 밤의...국힘도 검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 개헌 추진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환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경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주요영국회부의장 등이 자리했다.

우 의장이 먼저 이 대통령이 지난달 내각에 단계적·점진적 개헌 검토를 지시한 것을 거론, “정부 차원 논의를 공식화해줘 많은 국민이 이

번 개헌 추진에 큰 관심으로 지켜본다”며 개헌을 화두로 올렸다.

그는 “내일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리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전면적 개헌이 어렵기는 하다”며 “국가 질서의 근간인 헌법은 시대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는

데, 우리 헌법은 너무 오래됐다”고 진단했다.

또 “합의될 수 있는 부분, 국민이 거의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선 부분적·순차적으로 (헌법을) 고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에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여기 야당 대표들도 계신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나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은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라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 조계원 “‘한반도 KTX’ 타당성조사 착수”

### ‘서울-여수간 고속철도’ 신설 첫걸음

### ‘에너지 고속도로’ 융합도 함께 검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은 2일 “전남도로부터 ‘한반도 KTX 철도망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게시할 계

획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4년 국회에 등원한 이후 현재의 전라선(익산-여수) 구간의 ‘부분 직선화’가 아닌 새로운 노선인 ‘한반도 KTX 신설’을 통해 서울-여수간 이동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신설 노선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융합시켜 용인 반도제를

리스트 등에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도 배가되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사업비 및 공기를 단축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월12일 국회에서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정부 관계자들까지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이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서울-세종-전주-여수 구간 320km에 설계 속도 350km/h 이상의 고속철도망 구축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는 것으로 총 12개월간 3억5천만원의 도비를 들여 진행된다.

조계원 의원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한반도 KTX 철도망구축’을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라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한반도 KTX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본격화 광주시·과기부, 워킹그룹 첫 회의

광주시는 2일 북구 첨단3지구 인공지능(AI) 집적단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광주 AI 실증도시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어 도시 전역의 상시 실증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데이터·컴퓨팅·실증이 연계된 ‘도시 전역 상시 실증 플랫폼’ 구축 방향 ▲AI 데이터뱅크 기반 도시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체계 ▲국가 AI데이터센터 및 NPU컴퓨팅 기반시설 활용방안 등 실증도시 핵심 설계 개념을 구체화하는 등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규제 개선 효과와 AI 실증·상용화 파급력이 큰 교통안전, 의료건강, 공공행정, 생활환경, 문화감성 등 5대 생활밀착형 도시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실증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과기부통신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모델 구체화’를 위한 기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상가, 사무실(특)임대]**

○ 광주시내전역 대로변 최고요지  
○ 1층점포/2-10층사무실 평수다양  
○ 통건물: 300평/500평/1,000평/4,000평까지다양  
○ 특혜: 6개월무상(일부)/집기제공/보, 월세최저  
○ 승강기, 주차뺑뺑

**[특수매물]**

○ 상하물물교환(웃돈도 드릴 수 있습니다)  
○ 감정가, 공시지가이하 금액매물도 있습니다

**[금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b>돈</b>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